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제3113호 www.metroseoul.co.kr

'땅콩 리턴' 조현아 결국 퇴진

대한항공 모든 보직 해임—부사장 직함·등기이사 자위 유지
조양호회장 귀국 직후 사의 수용—'승무원 책임' 사과문 역풍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모든 보직에서 퇴진하겠다."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다. 다만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조 부사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조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 후 이날 오후 귀국한 즉시 인천공항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조 부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객과 국민에게 죄송하며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호텔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업무에서 손을 떼지만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직도 이어간다.

조 회장은 출장길에서 돌아온 직후 인천공항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고객에게 불만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임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인사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이륙 전 승무원의 견과류(마카다미아 너트)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이 보도되면서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참여연대가 항공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만큼 검찰 조사를 앞둔 처지다.

◆대한항공 사과문이 결정타

조 부사장이 전격 퇴진한 것은 전날 대한항공이 발표한 사과문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공식 입장 자료를 내놓고 승객에게 사과했지만 항공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탓에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당장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회사측의 해명에 분노했다.

노조는 "회사는 사과문에서 조 부사장의 중대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직원을 생각한다면 경영진의 과실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임원으로서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삼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한항공의 '사과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승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로 일관했다. 임원에게 서비스 점검 의무가 있다는 말은 변명이며 재벌 오너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 횡포는 이 비행기는 내 것이며 모든 직원이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하는 전근대적 전민주의 사고방식이 불러온 제왕적 경영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SNS에서도 향후 대한항공 대신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최근 유가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연료비 절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며 항공사들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경쟁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커 눈길을 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4500원에서 6000원을 넘어서며 35% 이상 급등했지만 대한항공은 4만원에서 19%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의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항공기를 되돌린 이번 사건이 대한항공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주식투자자는 "제주항공사인 제주항공의 최대주주 AK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가 치솟고 있지만 항공 대표주로 꼽히는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이번 사건이 세계 각국으로도 보도되면서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 것 같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박상훈기자 zzr@metroseoul.co.kr

조현아 퇴진 결정한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퇴진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 모든 과정을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조 부사장의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서울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인상

환승 허용 5회서 3회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환승 허용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는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 도입,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동일 요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1단계로 시계의 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아울러 환승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환승 허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최대 환승 가능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버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들을 합병, 장기적으로 4개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버스 감차 등 정책을 통해 재무구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 매각을 유도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boa@

관피아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문건' 유출 수사로 급선회

지로 빠션 의혹 경찰 2명 체포
한화 직원도 연루 혐의로 조사
검찰 '비밀 회동'은 허위 가닥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8일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 경정, '비밀 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 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의 무게 중심을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지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문건 입수 경위와 다른 경찰관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한-브루나이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기념촬영을 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박 대통령 "사명감 갖고 일해야"…靑에 '반기' 유진룡 겨냥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직접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반기'를 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체육계 적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통령 질책을 받았던 유 전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현정기자

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조현정기자

부동산시장 '또' 발목 잡는 국회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9.1부동산대책이 2개월 천하로 막을 내렸다. 9월 들어 상승 반전됐던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11월 들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갑게 식은 상태다. 거래량이 다시 줄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전세난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대부분이 효과조차 없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9.1대책은 약간이나마 약발이 먹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표 당시 '완결판 대책'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다.

최경환 부총리 부임 후 7.24대책부터 기준금리 인하, 9.1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데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가뜩이나 한 방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부동산3법'으로 꼽히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붙들고 있으면서 시장 회복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국회는 지난해에도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을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효과를 반감시킨 전력이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는 노리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계류가 반복되고 정책의 혼선이 계속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향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파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에든 때라는 게 있다.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뉴스&뉴스

백군기 "국방부, '땅굴 괴담' 단호히 대처를"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민간단체의 의혹 제기와 관련, "땅굴 괴담을 퍼뜨려 민심을 호도하고 막대한 세금을 쓰게 하는 이들에 대해 국방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9일 "관련 민간단체는 국방부가 땅굴이 없다고 공식발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 한국 출신의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도 현역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

● 병무청은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 선택은 15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1시까지 9일간 신청받는다. 입영일자 본인 선택은 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나눠 접수한다.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 복선전철 착공… 2019년 개통

남양주 ~ 서울역 49분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남양주시 진접읍 연결하는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진접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각각 본선과 차량기지를 맡아 2019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총 1조 33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서울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킬로미터 구간에 3개소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착공에 이어 4개 공구 중 일괄(턴키)발주된 3개 공구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가고 2016년 8월까지 전체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하루 3만 5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남양주시를 지나는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주성기자 tree@metroseoul.co.kr

인천 효성동 공장 밀집지대서 불 9일 오전 11시 18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공장 7곳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이날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2롯데아쿠아리움 물 '줄줄'

롯데 "안전 문제 없어"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물이 새 보수공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롯데그룹과 아쿠아리움 시공을 맡은 레이놀즈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2층 메인수조의 수중터널 구간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발견됐다.

롯데 관계자는 "아크릴과 벽체 사이의 실리콘 이음새 부분에 폭 1mm 안팎의 틈이 생겨 미세한 누수가 발생했다"며 "현재 보수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7cm 크기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물이 조금씩 새면서 마감 페인트가 넓게 번져 크게 보였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레이놀즈사의 전문가를 불러 6일 등을 보수했고, 실리콘 양생 기간을 감안해 현재까지 수중터널 일부 구간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9일 오후 누수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2층 메인수조의 수중터널 구간 벽면 누수 부위에 보수공사를 한 흔적이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아쿠아리움 측은 수중터널 구간의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묻는 관람객들에게 환경개선작업 중이라며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반축을 샀다.

롯데 관계자는 "레이놀즈사에 따르면 이같은 미세한 누수 현상은 국내 외 아쿠아리움 개관 초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조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

동대문시장 짝퉁 '거물' 구속

동대문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짜 명품의 60%를 공급하던 '거물' 짝퉁 공급업자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대문시장에서 정품으로 따지면 시가 수천억원 상당의 가짜 원단과 제품을 제조 공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6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6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L사, G사, C사 등 외국 명품을 모방한 가짜 원단을 제조하고 이 원단을 사용해 정품 가격 기준으로 6300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개상인들을 거쳐 노점상으로까지 상당량 유통됐고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5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주성기자

신해철 장협착 수술 S병원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故 신해철(46) 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서울 송파구 S 병원의 강모 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강 원장은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S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며 10일 중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별도의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 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7일 숨졌다.

/황재희기자 hee1039

'유병언식 기업 재건' 안된다

개정도산법 다음달 시행

회생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빚을 탕감 받은 뒤 제3자를 내세워 경영권을 회복하는 이른바 '유병언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법무부는 부실 사주가 가족 등을 내세워 회사를 차명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및 시행령을 내년 1월 16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인수 절차에서 배제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실 경영 주체가 개인일 경우 해당 경영자와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법인일 때는 임원과 계열사 및 계열사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법률은 이들을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인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해당 회사에 대해 사기·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회생절차를 간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 법률은 이 집회를 꼭 열도록 정했었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했다. '의결권 총액 3분의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 가 새 요건이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주성기자

서울사이버대 문화콘텐츠공학과 '인기'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기본로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공학과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개 계열 19개 학과(전공) 모두 특성화학과로 운영한다. 그 중 IT예술계열 문화콘텐츠공학과는 가치창출을 위한 인문학, 창의적 기획력, 감성적 스토리텔링, 문화예술공연의 엔지니어링, IT융합 기술인력 등 현 문화콘텐츠 산업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시 일반대학과 동일한 정규 4년제 미디어공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국 8개 지역 캠퍼스를 기반으로 방송기술사, 멀티미디어기술사, 문화예술교육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현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교육 콘텐츠를 구축해 본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2013년에는 교육부에 선위와 추진 한 특성화학과로 선정됐다.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사진) 교수는 "인문학적 사고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이론부터 전문적 제작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균형적 학습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문화콘텐츠산업을 선인해 줄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송주성기자

헉! 도심에 보잉 비행기

metro Russia

이착륙 시뮬레이션 행사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서 보잉 737NG 기종의 프리젠테이션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실물과 동일하게 제작된 조종실에 들어가 이착륙 시뮬레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항공서비스 업체 드림 에어로의 드미트리 코르뇌쉬코프-무린 대표는 "비행 시뮬레이션은 실제 비행 관리와 구체적 이착륙 여건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며 "시뮬레이션 컴퓨터의 메모리에 엄청난 양의 실제 비행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탑승자는 원하는 이착륙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이륙 장소로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 파리의 시골드골 국제공항, 착륙 장소로는 몰디브의 말레 공항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했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설계자 안드레이 고라는 "연료 충전과 이동 문제로 실제 비행기를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가로 옮길 수 없었다"며 "조종실과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비행공포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조종실에서 탑승자는 비행 상황은 똑같이 비행 시 느끼는 공포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 좌석에 앉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뮬레이션 체험 가격은 4900루블(약 10만원)에서 1만6000루블로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신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렸다.

/올가 솔가체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아이폰6 들고 구걸 '고급 거지'

metro HongKong

농한기에 타지서 사기

중국에서 아이폰6를 들고 돈을 구걸하는 '고급 거지'가 나타났다.

최근 충칭시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산샤광장에서 있는 외지 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노동자 4명이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고향에 돌아갈 차표가 없다며 구걸을 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돌아갈 돈도 없다는 외지 노동자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깨끗했고, 고급 시계와 반지 등 소지품도 고급스러웠다. 한 명은 최근 출시된 아이폰6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이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비행기였다.

조사 결과 4명은 모두 안후이성 출신으로 평상시에는 농사일을 하다 농한기에 다른 지역에서 구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외지 노동자인 척하면서 집에 돌아갈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도움을 요청했다. 행인에게 요구하는 돈이 3~5위안(약 500원~900원) 많아야 몇 십 위안으로 액수가 적어서 수많은 시민이 돈을 내줬다.

지난달 28일 난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충칭으로 온 이들은 며칠 동안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걸을 했다. 충칭에 와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한 사람당 700~800위안(약 13만~15만원)을 벌었다. 이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과 구걸행위로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소식에 한 네티즌은 "이런 행위는 구걸이 아니라 명백히 사기다.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김정은 암살 영화 '수난'

해킹 단체 4번째 자료 유출…CEO 사생활 폭로 협박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연일 화제다. 크리스마스 개봉을 앞두고 자료가 잇따라 해킹, 영화가 제때 개봉될 수 있을지 노이즈 마케팅은 아닌지 관심이 뜨겁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자칭 'GOP'(평화의 수호자)인 해킹 그룹은 8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명을 통해 "지역적 평화를 깨고 전쟁을 유발하는 테러 영화 개봉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를 해킹한 자료를 네 번째로 유출했다.

이들은 성명에 영화 제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신은 '인터뷰'를 겨냥해 재등으로 개봉 포기 요구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GOP는 소니가 영화 개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니 측은 그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화 '인터뷰' 포스터.

이들은 "소니 공동회장인 에이미 파스칼과 TV부문 사장인 스티브 모스코가 사생활 해킹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소니와 미 연방수사국(FBI)은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수사 당국을 조롱하기도 했다.

소니는 지난달 24일 해킹 공격으로 배우와 직원 등 4만7000명의 개인정보와 제작 영화 파일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사 당국은 해킹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 엿보인다며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누군가의 의로운 소행'이라며 해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터뷰'는 미국 TV토크쇼 진행자와 연출자가 방북해 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노리다는 코미디 영화다. 오는 25일 미국과 캐나다 개봉을 시작으로 전 세계 63개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는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코딩 배운 오바마 '주먹 인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뉴어크 지역 중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학생에게 컴퓨터 코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요토미 편지에 무슨 내용…

조선 침략 수군 장수에게 보낸 서한 발견

임진왜란(1592~1598)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조선 침략에 나선 수군 장수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토미의 서신 등 4건의 서한을 현재 고베대학이 분석 중이다.

서신에는 히데요시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일본 수군을 주도한 구키 가문 일원인 구키 나리타카에게 기모노 3벌을 하사하며 격려한 내용이다.

서신에서 도요토미는 "이것을 입고 심혈을 기울여달라. 앞으로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은 구키 가문의 후손이 보관하던 것이다. 도요토미의 서신 이외에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낸 서한의 사본도 있다.

고베시에 사는 40대 여성은 조부에게 물려받은 서한을 연구에 활용해 달라며 최근 조사를 의뢰했다.

구키 나리타카는 임진왜란 당시 한골보 해전(1592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에 대패한 구키 요시타카의 아들이다. /조선미 기자

/고베신문

변신로봇 '또봇' 타고 글로벌 진격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㉗

영실업

'바이클론즈'도 대박행렬 동참
2017년 매출 2500억원 목표
신입 연봉 3400만원 업계 최고

달리던 자동차가 멋진 로봇으로 한순간에 변신한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로봇이 결합하면 엄청난 힘과 덩치를 지닌 합체로봇으로 탈바꿈한다. 취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바로 눈치 챘을 '변신로봇 또봇' 이야기다. 지난 어린이날 물량 부족으로 '또봇 대란', '또봇 품절 사태'를 경험했던 학부모들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또봇 구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영실업 직원들이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제품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국내 완구 분야 판매 1위

또봇 열풍은 34년 동안 완구 산업에 머물러 왔던 영실업의 기업 분위기를 극적으로 변신시켰다.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가해 2010년 첫 선을 보인 또봇이 2012년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2009년 209억원에 그쳤던 매출도 지난해 76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 뛰었다.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20%를 넘나든다. 세계적인 레고와 아성도 무너뜨리며 국내 완구 분야 판매 1위까지 차지했다.

김영인 부사장은 "시크릿 쥬쥬, 콩순이 등은 물론 최근 애니메이션을 통해 방영되기 시작한 동물형 변신로봇 '바이클론즈'가 또봇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2017년까지 연 매출 2500억 원을 달성하고 완구에서 영상제작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Global Kids Contents Creator)로 도약하겠다"고 자신할 정도다.

◆연간 120만원 복지 포인트

영실업은 이같은 꿈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복지제도도 빠르게 '합체'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가족대상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보육수당 지급 등은 물론이고 신혼 직원에게는 3000만원 내외의 보금자리 지원 시내 대출도 시행중이다. 특히 연간 120만원 한도의 복지포인트 활용범위를 직원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늘렸다. 어학, 헬스 등은 물론 뮤지컬, 영화 관람, 스키·골프 시즌권 구입 등도 복지포인트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근무여건이다. 오전 9~11시 출근 시간을 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많은 팀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게다가 매달 한차례 진행되는 '가족의 날'에는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오후 3시에 퇴근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대졸 신입 초임 연봉은 3400만원이다. 연봉의 20% 내외의 인센티브는 별도다.

◆내년 30여명 신입 사원 모집

창의성·다양성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영실업은 사세 확장에 따라 최근 채용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1년 60여명이던 인원이 현재 두 배가 넘는 150여명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도 디자인 연구소와 영업본부 증설로 3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youngtoys.co.kr)를 통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봉태규 같은 열정이면 환영

이런 인재를 원한다

"얼마 전 tvN '오늘부터 출근'을 통해 영실업에 출근했던 배우 봉태규 씨는 출연 전 마트에서 또봇 등을 직접 살펴보고 와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팔았던 제품들의 최종 상황까지 꼼꼼히 살펴 감동이었죠."

김영인(사진) 부사장은 봉태규와 같은 열정을 지닌 구직자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TV에서 봤던 것처럼 기업 분위기가 매우 젊다

▶▶34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이지만 기업분위기만큼은 벤처기업 못지않다고 자부한다. 일례로 사내 카페테리아에는 대표 등 임직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휴식 공간이니만큼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직원 만족도도 높아 보인다

▶▶5명 내외의 인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다. 이 덕분인지 지난 2년간 퇴직자는 학업 등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4명에 불과했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보통 단안을 외워서 대답하면 합격하기 힘들다. 스펙보다는 자신이 지닌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의 업무를 통해 인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유리하다. /이국명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문과생 '돈의 흐름'부터 파악하라

Q 문과생이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과생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이 은행권과 금융권에 많이 취직했는데 이 분야 상황이 현재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여서 문과생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문과생이 취업할 수 있는 비법은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기업 소개, 매출 현황 돈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의 흐름', '조직', '회사언어'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기업이 바로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사업 내용의 포커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회사와 직무 언어를 익혀두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회사 언어를 매우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지원자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자기소개서에 주력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업이 찾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합쳤을 때 이미지가 확 떠오르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인재상과 성향에 따라 장단점을 다르게 작성해야겠죠.

또 낯선 것을 배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과생이지만 공대수업을 들었던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고 성취했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취업단기(www.ereslanol.com/) 예)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60세 정년 시대? 체감은 48세

직장인 62% "환갑 후에도 일하고 싶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환갑 이후에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침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실 속 정년은 길어야 50대 초반이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9일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 정년은 평균 48.1세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예상되는 퇴직 연령으로 '40~45세'라는 대답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45~50세'(21%), '50~55세'(19%) 등이 거론됐다.

체감 정년과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환갑을 넘겨서도 일하고 싶어했다. 같은날 진행된 취업포털 사람인의 희망 정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2.9%가 '64세 이상'을 선택했다. 이어 '58~60세'(22%), '61~63세'(18.5%), '무정년'(17%), '55~57세'(5.4%) 순으로 60세 이후에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벼룩시장구인구직 희망 정년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2.4%가 '60세 넘어서도 일하겠다'고 답해 체감 정년과 희망 정년의 간극을 드러냈다. 특히 '40세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실제 정년 퇴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50~55세' 응답률은 9.3%에 그쳤다. 이 가운데 43.9%는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희망 퇴직은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윤희기자 unique@

中·日 단말기 국내 시장 잠식할까

中 화웨이 스마트폰 이어 日 소니 제품도 판매 개시

중국·일본산 스마트폰이 국내 휴대전화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휴대전화 가격 경쟁력이 중요변수로 떠오르자 중국·일본산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주요 프리미엄 폰으로 제한됐던 이동통신사 매장 풍경도 중국·일본산 단말기가 깔리기 시작하여 다양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부터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X3'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어 CJ헬로비전도 9일부터 일본 소니의 스마트폰 '엑스페리아Z3 콤팩트'의 본격 판매에 나섰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중국과 일본 등 외산 단말기에 본격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단말기를 선호하는 고객 니즈 때문으로 분석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외산폰 출시를 검토해 왔는데 가격 대비 성능 차원에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단말기가 없었다"면서 "지난 10월 소니가 출시한 엑스페리아Z3 콤팩트는 여러 후보군 중 가격 대비 성능, 애프터서비스(AS) 물량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J헬로비전의 알뜰폰 '헬로모바일'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이라면 국산폰이나 외산폰에 신경쓰지 않고 출시할 것"이라며 "향후 외산폰의 추가 출시 계획에 있어서 이번 엑스페리아Z3 콤팩트 출시가 하나의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헬로모바일이 출시한 엑스페리아Z3 콤팩트는 4.6인치 크기의 엑스페리아Z3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최고 감도(ISO) 1만2800과 스테디샷을 지원하는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 25㎜ 광각 G렌즈를 탑재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IP68 방진·방수 기능 등을 자랑한다.

알뜰폰 업체에서 일본산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일본 등 외산 단말기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이용자들은 고가의 프리미엄급 단말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으며, 외산폰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가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화웨이 X3 출시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다만 X3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에 당초 52만8000원이던 출고가도 지난달 말 33만원까지 낮췄다.

5인치 풀HD 터치스크린에 LTE Cat.6(광대역 LTE-A)를 지원하고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3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슈퍼 파워 세이빙 모드 기능'을 통해 최대 16시간 연속 통화 등을 지원한다. 이처럼 고사양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시장 분위기는 차가웠다.

이에 모기업인 LG유플러스가 직접 나서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인지도 개선에 나서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ZTE를 블랙베리, 노키아 등 외산 휴대전화가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에서 잇따라 실패를 맛 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휴대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중국·일본산 스마트폰이 얼마나 판매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국제유가 하락에 코스피도 주락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8.00포인트(0.40%) 하락한 1970.95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보안 강화' 최대 화두로

도난 방지 및 기업의 업무용 위한 기술 탑재

스마트폰 업계에서 '보안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도난을 방지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보안 기술도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S5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 탭S 8.4 등 태블릿 3종에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를 탑재했다. 이 제품들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산하의 국가정보보증협회(NIAP)로부터 정부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NIAP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스마트폰의 보안 규격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미 정부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는 반드시 NIAP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 삼성전자는 블랙베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보안을 강화한 안드로이드 기반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을 내년 초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업무 영역과 개인 영역을 구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보안 정보와 임직원의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쟁이 치열해진 B2C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G3 역시 NIAP가 심사하는 보안인증을 통과했다. 현재 이 인증을 통과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와 LG전자뿐이다. 이 제품에 탑재된 '노크 코드'는 자신이 정한 패턴을 터치해 화면을 켜면서 잠금까지 해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국내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상태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지난 9월 독자 보안 솔루션인 '게스트모드' 역시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했다. /명현기자 hlmsl@

카톡 '비밀 채팅' 도입

디지털 프라이버시 강화

개인 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톡이 가입자 이탈을 막는 기능을 선보였다.

9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비밀채팅 모드와 그룹 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을 도입했다.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4.7.0 버전에서 시작된 업데이트는 이른 시일 내에 iOS 버전에도 확대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업데이트 기능은 비밀 채팅이다. 다음카카오는 비밀 채팅에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해제하는 암호키가 단말기에만 저장되어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지난 가을 카카오톡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대화 내역의 검찰 제공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 속에 가입자 이탈이 속출하자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현행법 거부 파문까지 일으켰다.

한편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에는 그룹 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그룹 채팅방에서 나간 후 원하지 않는 재초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윤희기자 unique@

market index (9일)

코스피	코스닥
1970.95 (-8.00)	548.57 (-4.83)

금리	환율
2.18 (-0.04)	1109.00 (-11.00)

뉴스&뉴스

창조경제마트 오픈 롯데마트는 디자인 혁신과 기술 융합 아이디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인 개인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창의 상품을 판매하는 LOTTE 창조경제 MART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마트 제공

직장인 68% "연차 다 못써"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올해 안에 남은 연차를 다 못 쓸 것 같다"고 답했다. 9일 기준 응답자의 남은 연차 평균은 7.4일이었다.

연차를 다 못 쓰는 주된 이유는 업무량과 눈치 때문이었다. '회사와 동료 분위기 때문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는 비율은 52.8%, '업무가 너무 많아 쉴 수 없었다'는 답변은 31.3%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응답자의 58.9%는 연차 쓰는 날에도 회사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 휴가와 업무날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9(소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진표
광고문의	02)721-9854
독자센터	02)721-9801

정부3.0

청춘을 응원하는 당신의 기부, 기분좋은 보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의
자유로운 날개를 접은 대학생들
당신의 기부가 그들의 희망날개가 되어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에 참여하세요!

기부 활동 분야 기부장학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기부절차

① 약정하기
- 온라인 기부, ARS소액기부, 전화약정, 우편/팩스/이메일약정

② 납부하기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법인납부 등
- 기타 자산 기부시 방문 및 전화 상담

③ 확인증 발급

①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전화약정 (개인기부) 02-2259-2028, 2021 (법인기부)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약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
- 팩스 02-2259-2159 · 이메일 gift@kosaf.go.kr
- 우편주소 서울시 중구 ... 6층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기부금 담당자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100-025-420820 · 기업은행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1005-601-531623
- 외환은행 630-006641-710 · 하나은행 175-910011-87604 (예금주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젊은 투자자를 위한 ELS 입문서 출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금융본부 소속 ELS 담당 직원들이 만든 ELS 입문서인 '마이스토리온 ELS(My Story on ELS)'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젊은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책자는 ELS란 금융상품을 몰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와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은행권 '임원 인사 태풍'

하나·신한 부행장 5명 임기 만료… 사외이사 대거 교체될듯

은행권 사외이사와 부행장급 임원 인사태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말 인사에는 부행장급 인사뿐만 아니라 CEO(최고경영자) 선임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외이사도 포함돼 있어 은행 내 '별 중의 별'들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을 위해 부행장과 상무 등 1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광구 차기 행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성과 영업력을 반영해 부행장은 상무에서, 상무는 영업본부장급에서 결정됐다.

은행 내에서 '별 중의 별'로 꼽히는 부행장은 수억원의 연봉에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개인비서 등이 제공되고 거액의 판공비까지 쓸 수 있는데다 차기 CEO 후보군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 등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등 개입 우려 역시 매 인사 시즌 마다 단골로 등장한다.

은행별로 보면 현재 하나은행은 6명의 부행장 중 곽영주, 정수진, 황종섭, 김영철, 이영준 등 5명의 임기가 오는 31일 끝난다. 다만 김병호 부행장은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임기가 다음 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신한은행은 13명의 부행장 중 임영진, 김형포, 이동환, 임영석, 서현주 부행장 등 5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난다. 농협은행도 10명의 부행장 중 이신형, 이영호, 이정모 부행장 등 3명이 이달중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행장 7명 중 올해 말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부행장은 홍완기 신탁본부장 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KB 내분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들의 정리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폭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CEO 인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외이사들도 대폭 물갈이 된다.

특히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들이 KB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할 예정이어서 대거 공석이 예상된다. 실제 내년 3월 김영진, 이종천 이사 등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모두 6명 가량의 교체 수요가 생긴다.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도 오갑수 사외이사가 이미 물러난 데 이어 김중웅 의장의 임기도 내년 4월이면 끝난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10명 중 8명이, 신한은행은 6명 가운데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말 주주총회 때 만료된다. 하나금융지주는 7명 중 4명, 하나은행은 6명 중 4명, 외환은행은 6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 때 끝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민영화 추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해 박영수, 오상근, 채희율, 최강식, 장민 등 5명의 사외이사 임기를 모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정했다.

/채신화기자 csh@metroseoul.co.kr

KB금융, 김연아·손연재 새 TV광고

KB금융그룹이 "새롭게 도약하는 KB",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KB"를 콘셉트로 하는 TV광고를 지난 8일 론칭했다.

새광고는 피겨여왕 김연아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출연해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자긍심 회복과 고객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KB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연아가 출연한 '국민에게 더 가까이' 편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녀가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어린 피겨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받은 사랑 국민 가까이에서 보답하고 희망을 드리는 KB'가 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표현했다.

손연재가 출연한 '새로운 도전' 편에서는 아시아 1위에 머물지않고 세계 1위의 선수가 되기 위한 그녀의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KB의 비전을 전한다.

이번 광고에서 KB금융은 그룹의 브랜드 슬로건인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고객이 없으면 KB도 없다"는 사명감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KB의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황인지기자 mini@

은행권 "동심을 잡아라"

어린이 전용통장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저마다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캐릭터로 꾸며진 어린이 전용통장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해 통장을 디자인한 'KB주니어스타 통장·적금'을 내놨다.

'KB주니어스타 적금'은 학자금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이다. 가입시 10만원 이상, 2회차 이후 3만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월별 최대 5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자동 재예치 동의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 단위로 재예치된다.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가입고객 포함 가족 3명 이상이 국민은행 가족고객으로 등록된 경우 0.2%포인트, 'KB주니어스타 통장' 보유고객 가입 시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최초 1년간 적용한다. 또 납입회차의 3분의 2 이상을 자동이체로 입금할 경우 자동이체 우대금리로 연 0.1%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KB주니어스타 통장'은 스쿨뱅킹 및 휴대폰 요금 등의 자동이체, KB주니어스타 적금 가입고객에게 결산기 평균잔액 중 50만원 이하 금액에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어린이 금융상품으로는 '우리 토마스 통장·적금·예금'이 있다.

토마스적금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거나 '우리아이사랑카드'를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1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2.1% 금리를 제공한다. 복리형 상품인 토마스적금은 1~5년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토마스정기예금은 가입금액별로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의 '신난다~ 주토식 어린이통장'은 통장 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적립식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입출식과 적립식에 같은날 가입하면 입출식 통장 적용금리는 연 3.0%까지 가능하다. /황인지기자

장태욱 부행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직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1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 '따뜻한 금융' 브랜드경영으로 국무총리상

신한은행이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은 참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주는 상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브랜드경영을 선포하고 꾸준한 브랜드경영활동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브랜드경영의 일환으로 따뜻한 금융 우수 사례의 대외 공유를 위한 '신한 미션데이 은(銀)'과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활동을 중점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의 상생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해 '따뜻한 금융'을 신한은행 브랜드의 차별적 요소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기업공개〉

내년에도 IPO 물량 쏟아진다

올해 2배 177곳 채비… 공모주 투자 열기 뜨거울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주 투자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주 제일모직의 공모청약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이상의 기업공개(IPO) 물량이 몰려 있어 기대감이 고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KTB자산운용에 따르면 내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계획한 업체는 총 17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79곳의 2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9곳이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장 시점의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최근 삼성SDS의 흥행 성공에 이어 이번주 제일모직까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공모청약을 진행하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대형 종목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헬스케어 업체인 덴티노믹스 등 중소형 종목도 300~500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은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 자금들이 대거 IPO 시장으로 유입됐다"며 "대어급 업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상장 시점을 확정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공모주펀드 73개로 올 들어 84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으며 이 중 상위 4개 펀드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올 들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2조5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국내혼합형펀드에 3조1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투자 수요가 몰렸음을 알 수 있다.

공모주 펀드의 장기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5년 수익률을 집계할 수 있는 개별 펀드 43개의 평균 수익률은 9.22%로 집계됐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골든브릿지블루오션3호(채권)로 이 기간 42.85% 성과를 거뒀다. 이어 '하이공모주플러스30 1[제(채권)]'과 '하이공모주플러스10 1[제(채권)A'가 각각 27.41%, 25.70%로 뒤따랐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다.

올해 4월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에 들어온 자금을 보면 공모형에 5900억원이 들어왔고 사모형에는 무려 2조원 가까이 유입됐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이 집계가능한 38개 펀드는 평균 7.55%의 성과를 냈고 1개월 수익률이 산출되는 204개 펀드는 평균 3.57%의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도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 연구원은 "최근 공모주 시장이 투자 자금을 흡수할 만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의 좋은 흐름이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효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이수창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은 9일 취임식에서 "생명보험이 노후의 안정적 소득과 의료비용 증가 수요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고령화시대 생명보험 역할 확대돼야"

이수창 생보협회장 취임… 연간 수입보험료 100조 기대

"100세 시대, 노후의 안정적 소득과 의료비용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재정이 늘어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수창 생보협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협회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한 업계의 핵심과제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생명보험 역할 확대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적극적인 대처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통한 신시장 발굴 ▲생보산업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64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연간 수입보험료도 100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도 325%에 달하고 있다"면서도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고령화와 은퇴 후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금융업권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회장은 "'명심보감' 존심편에 보면 膽欲大而心欲小 智欲圓而行欲方(담욕대이심욕소 지욕원이행욕방)이란 말이 있다"며 "용기와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잊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년 만의 민간출신인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illegible]

우리은행 이사회, 이광구 차기 행장 공식 추천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57·사진)이 차기 행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9일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부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달 말부터 2016년 말까지 2년으로 정해졌다.

은행장의 통상 임기는 3년이지만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도 비슷한 이유에서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로 통상 임기보다 짧게 정해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30일 주주총회에서 이 내정자를 신임 행장으로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노조는 이날 은행 본점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행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이 내정자에게 요구했다. /[illegible]

우리카드–라이나생명 '라카드' 출시

보험료할인과 카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다.

9일 우리카드는 라이나생명과 손잡고 보험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나생명리서즐거운카드(이하 '라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라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라이나생명의 월 보험료를 최대 3만원씩,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이는 전월 실적 3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 결제 시 매월 1만원, 1만5000원, 2만원, 3만원을 보험료 카드결제 금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고객이 라이나생명의 '라이나OK암보험-2형'에 가입하고 해당카드로 전월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고객은 월 보험료 2만7300원 중 2만원을 할인받고 7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영화관과 서점,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등의 다양한 부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이용 시 전국 영화관 3000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20% 청구할인, 전국 주요 놀이공원 50% 현장할인, 아웃백과 TGIF, 베니건스 10% 현장 할인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나다 시리즈로 카드를 개발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이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혜택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주고객층인 30~6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부가혜택으로 구성한 카드상품을 기획해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대우증권, 연 10% ELS 등 11종 판매

KDB대우증권은 9일부터 ELS 6종, ELB 1종, DLS 3종, DLB 1종 등 11종을 15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159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10.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제197회 원달러환율 원금 102% 보장 낙아웃 콜&풋옵션형 DLB는 1.5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평가가격에 따라 최소 2.00%에서 최대 4.25%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들은 ELS·ELB의 경우 11일까지, DLS는 12일 오전 11시까지 판매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SK그룹, 하이닉스 빼고 다 바꿔!

'실적악화' 주력4사 수장 모두 물갈이
정철길 이노베이션·장동현 SKT 사장

SK그룹이 9일 사장단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주력 계열사의 사장이 바뀌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주력 사업인 정유 부문이 올해 심각한 부진에 빠진데다 SK하이닉스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SK는 9일 관계사별 이사회와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2015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의장추보추천특별위원회와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는 김창근 의장을 따로 또 같이 3.0 체제 2기 의장으로 재추대했다.

SK이노베이션 사장에 정철길(왼쪽 사진) SK C&C 사장이, SK텔레콤 사장에는 장동현(오른쪽) SK플래닛 COO가, SK네트웍스에는 문종훈 수펙스추구협의회 통합사무국장이, 그리고 SK C&C 사장에는 같은 회사의 박정호 부문장이 각각 이동, 승진 했다.

SK에너지는 정철길 이노베이션 사장이 겸직한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국내사업 위주였던 SK C&C의 사업구조를 글로벌 사업구조로 바꾸고 기업가치를 크게 성장시킨 바 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정보통신 업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유·무선 통신업이 갖고 있는 성장정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ICT 성장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을 맡아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과 이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SK M&C의 워커힐 사장 경험을 살려 SK네트웍스의 경영정상화를 마무리하고 사업모델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전망이다.

박정호 SK C&C 사장은 다양한 글로벌 사업개발 경험을 갖고 있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 ICT를 통한 강력한 성장을 모색할 적임자라고 SK는 설명했다.

아울러 SK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서 승진 30명, 신규선임 87명 등 총 117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예년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부분 관계사에서 임원 승진규모가 축소돼 성과주의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SK는 주력 관계사의 세대교체를 보완하고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그룹 내 최고경영진을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에 보임했다.

전략위원장에는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글로벌성장위원장에는 유정준 SK E&S 사장, 윤리경영위원장에는 하성민 현 SK텔레콤 사장, 동반성장위원장에는 현 동반성장위원회 실 위원인 이문석 사장이 보임됐으며 통합사무국장에는 지동섭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이 보임됐다.

/박상준기자 zen@metroseoul.co.kr

웨어러블기기 손목에서 눈으로

삼성전자 '삼성 기어 VR' 미국서 판매 나서
한국인이 만든 NOONVR도 출시 초읽기

웨어러블(입는) 스마트기기 시장이 손목에서 눈으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과 LG전자, 애플 등이 스마트워치 시장의 합류로 올해 주목받았다면 내년 초부터는 VR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VR)용 웨어러블 기기 '기어VR'(사진)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구매 가능한 국가는 미국으로 제한적이지만 조만간 국내에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얼굴에 착용하는 헤드기어 형태의 기어VR 이노베이터 에디션 판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미국 현지 이동통신사인 AT&T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는 199 달러(약 22만3000원)이다. 기어VR 개발 업체인 오큘러스가 만든 앱을 포함해 총 17개 앱이 탑재됐고, 게임도 포함됐다.

기어VR은 갤럭시노트4를 끼워 넣은 뒤 그 화면을 보다 실감나는 가상현실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기기로,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제품용 기기 전문업체인 오큘러스와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 오큘러스를 인수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를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주 접촉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소니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소니는 게임에 특화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제품은 머리에 착용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분석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해상도는 풀HD 표시가 가능하다.

특히 소니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PS4)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PS4 주변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카메라'와 함께 쓰면 게임기가 사용자 머리 움직임에 사용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이 만든 회사에서도 VR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NOONVR로 스마트폰을 결합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고글로 201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은 79 달러(8만 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제품은 삼성전자와 소니가 출시한 제품에 비해 뛰어난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

4.7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이라면 기종별로 선택이 가능한 착탈프레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NOONVR 사용자는 최적화된 가상현실앱인 KOOM VR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동영상과 온라인 동영상을 VR모드로 감상할 수 있다.

NOON VR에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애플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삼성전자 갤럭시S4, S5, 노트3, 4다, LG전자의 G3, G3까지 지원된다.

이외에 애플도 가상현실 관련 연구개발 인력 구하기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키즈패드 2' 크리스마스 패키지 LG전자는 유아 전용 패드인 '키즈패드2' 크리스마스 특송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키즈패드2와 함께 유아용 원목가구, 학습용 그림 시트 3종, '놀이북' 12권 등으로 구성됐다. /LG전자 제공

모뉴엘 결국 문 닫는다

파산선고…자회사 잘만테크 회생절차

모뉴엘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 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파산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내년 초 모뉴엘이 가진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3월 18일 열린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모뉴엘은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일 모뉴엘 자회사인 잘만테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14일까지다. /김성현기자

'공영TV홈쇼핑' 내년 1월 출범

'관피아 세계 만들 것' VS '중기 육성 위해 필요' 찬반 의견 팽팽

내년 1월부터 창의 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홈쇼핑 채널로는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등에 따르면 12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승인신청 요령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희망 사업자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후 25~31일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영TV홈쇼핑 신설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은 예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공영TV홈쇼핑 신설을 놓고 관련 업계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일각에선 이미 공적 성격을 지닌 홈쇼핑 설립이 이뤄졌지만 결국 모두 정책적 실패를 거둔 상황에서 새롭게 공영TV홈쇼핑을 신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은영하면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인사들이 퇴임 후 자리를 옮겨가는 수단으로 삼아 관피아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결국 홈쇼핑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TV홈쇼핑의 경우 수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청률이 보장돼야 한다. 시청률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널 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부 측은 "채널 배정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채널 배정 관련 방침지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번 공영TV홈쇼핑 신설 결정에 있어 '신규'와 '공영' 사업자의 필요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영세 중소기업 상품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TV홈쇼핑이 최적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공영TV홈쇼핑에서는 100% 중기제품(창의·혁신제품 포함)과 농축수산물로만 편성해야 한다.

시장구조 측면에서 TV홈쇼핑은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세에 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타 유통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과거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이 설립초기와 달리 현재 민간 TV홈쇼핑처럼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공적 목적 달성을 촉구할 관리 수단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다.

황근 전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앞서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 세미나에서도 "이미 기존 홈쇼핑 6개사의 중기 제품 평균 편성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굳이 채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홈쇼핑 신설보다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영기자 ls0403@metroseoul.co.kr

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포드 링컨자동차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종합 시승 '2015 링컨 MKZ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 링컨이 국내에 선보인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MKZ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6.8㎞/ℓ(도심 17.2㎞/ℓ, 고속도로 16.5㎞/ℓ)이다. /연합뉴스

1순위 마감 단지 작년보다 2배 이상

부산 증가율 1위

올해 청약 1순위 마감된 단지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된 단지는 총 144곳으로 지난해 총 64곳 보다 80곳(약 2.3배)이 더 늘었다.

1순위 마감 단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13년 5곳에서 2014년 21곳으로 16곳이 늘었다. 대연2구역, 서대신7구역, 장전3구역, 재송2구역 등 재개발해 분양한 단지들이 인기가 높았다.

특히 장전3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금정구 장전동 '래미안 장전'은 1순위 청약자 모집에 14만63명이 청약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고 대연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남구 대연동 '부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도 1순위 청약자 모집에 12만7129명이 청약했다.

뒤를 이어 경기가 2013년 1순위 마감 단지 9곳에서 올해 24곳으로 15곳이 증가했다. 위례신도시 5곳, 미사강변도시 3곳, 동탄2신도시 4곳, 광명역세권지구 3곳, 시흥목감지구 1곳, 의정부민락2지구 1곳, 수원세류지구 1곳 등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단지들은 대체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분양됐다.

광주는 2013년 1순위 마감 단지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현재 11곳으로 10곳이 늘었다. 광주는 남구 4곳, 북구 3곳, 광산구 2곳, 동구 1곳, 서구 1곳으로 1순위 마감 단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광주 역시 학동3구역, 동림2구역 등 재개발해 분양한 단지로 1순위 청약자들이 몰렸다.

세종시는 2013년 1곳이었던 1순위 마감 단지가 올해 10곳으로 9곳이 늘었다.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 분양 단지 중 2순위 마감된 '캐슬파밀리에(M1블록)'을 제외하곤 모두 1순위 마감됐다. 다만 3-2, 3-3생활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3순위 마감된 '세종 EG the1'와 '세종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M4블록)'을 제외하곤 모두 미달되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다.

경남은 1순위 마감단지가 2013년 3곳에서 올해 12곳으로 9곳이 증가했다. 율금지구와 재건축해 분양한 단지들이 인기가 높았다.

이밖에 대구가 2013년 10곳에서 올해 18곳으로 8곳이 늘었고 충남이 1곳에서 8곳으로 7곳 증가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중소형 아파트 '완판 행진'

소형 강세 두드러져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은 물론 중형에 비해서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서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면적(이하 동일) 60㎡ 이하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3.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60~85㎡는 2.76%, 85㎡ 초과는 1.63% 오르는데 그쳤다.

거래량도 증가 추세다. 3분기 기준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총 9만6893건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5000여 건 늘었다. 또 지난해 3분기(6만4164건)과 비교해서도 3만여 건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인천 송도국제도시 F14블록에서 공급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의 경우 59㎡A가 10.8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이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도 2~4블록 중 33.37·45㎡가 포함된 4블록이 3.0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또 상반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분양됐던 '한강센트럴자이'는 59㎡가 84㎡보다 먼저 계약을 마감했다.

이 같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매매가(분양가)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비교적 낮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난에 떠밀려 매매나 분양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평면의 진화로 중형 못지않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60㎡짜리 아파트에 25㎡의 서비스공간만 제공되더라도 확장 시 85㎡(33평형)와 같은 공간을 누리게 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형보다 중대형을 짓는 게 이익률이 높다"며 "하지만 소형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부를 소형으로 짓거나 소형 위주로 구성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mos@

9000만원짜리 '톱스타 트리' 눈부셔

'X마스 박사' 프란가 연출… 오토바이 매다는 이색 장식도

글로벌 이코노미

8만 달러(약 9000만원)에 달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누가 장식하는 걸까.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유명인사들의 트리를 장식하는 트리 스타일리스트 밥 프란가를 소개하며 그의 연출 비법을 공개했다.

프란가는 일명 '크리스마스 박사'로 불린다. 30년 전 영화배우 미아 패로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것을 계기로 트리 장식 전문가로 나섰다.

뉴욕 메이시 백화점에서 일하던 시절 프란가는 우연히 패로를 만나 트리를 꾸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할리우드 스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그는 '스타의 스타'가 됐다. 톱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등이 단골 고객이다.

프란가의 손을 거친 트리는 마법처럼 집안 분위기를 바꾼다.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에 은빛 눈과 황금빛 장식이 어우러지면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프란가는 "나에게 모든걸 맡기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카푸치노 한 잔 마시면 환상적인 트리가 완성된다"며 "보통 크기의 트리를 장식하는 데 약 45분, 집안 전체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연출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30분 정도 고객과 트리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예산 등을 논의한 뒤 작업을 시작한다"며 "트리 장식에 따라 흔다 렉서스, 롤스로이스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가격은 나무의 크기와 장식에 따라 2500~8만 달러"라고 덧붙였다.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수거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경우 대형 트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작업이 만만찮다. 프란가는 일반인 고객과 기업도 종종 트리 장식을 의뢰한다고 했다. 산타클로스와 하얀 눈을 테마로 하는 기본 스타일은 물론 오토바이를 트리의 맨 꼭대기에 매달아 달라는 기상천외한 요청도 있다.

스타들의 거실에 놓이는 최고급 트리에는 어떤 장식이 사용될까. 100 달러짜리 유럽산 트리장식을 비롯해 이색 인형 장식이 총출동한다. 팝스타 비욘세는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을 올렸다. 비욘세 트리에는 반짝거리는 고깔리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가수 머라이어 캐리는 분홍색 장미꽃으로 트리를 화사하게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프란가는 매년 90여 가구의 트리를 장식한다. 일찍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을부터 장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올해는 지난달 17일에 첫 번째 트리를 만들었다.

프란가는 예산이 빠듯해도 멋진 트리를 만들 수 있다며 실속 있는 트리 연출법도 귀띔했다. 그는 "작은 장식 여러 개를 곳곳에 늘어 놓는 것보다 색상과 모양이 돋보이는 장식 몇 가지를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리 꼭대기를 장식하는 별을 비롯해 장식 한두 가지를 과감하고 화려하게 연출하라"고 조언했다.

한국, 저유가 혜택 세계 최고

GDP의 2.4% 절감 예측

우리나라가 저유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디움그룹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데 따른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비용 절감 효과와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원유 수입 비용 절감을 통해 무려 GDP의 2.4%를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1.8%), 일본(1.2%), 독일(0.8%), 중국(0.8%), 미국(0.5%)도 저유가에 따른 수혜국으로 분류됐다.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지적했다. 수입 비용이 감소하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뿐 아니라 원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산유국들은 수입이 크게 줄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가장 타격이 심할 국가는 쿠웨이트로 원유 수출 대금 감소가 GDP의 18.1%에 이른다. 지난달 OPEC 회의에서 원유 생산 축소에 반대하며 동결 결정을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GDP의 15.8%에 해당하는 수출 대금 감소가 예상됐다.

◆내년에 43달러까지 더 하락 가능

한편 유가가 내년에 43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5일 자 보고서에서 2015년 브렌트 평균 유가를 70달러로, 앞서보다 28달러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저가는 43달러로 예측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8일(현지시간) 브렌트유 1월 인도분이 4% 이상 하락해 66.19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국가별 GDP 대비
원유 수입·수출 비용 절감 비율

2.4%
1.8
1.2
0.8
0.5

-18.1%
15.8
13.6
10.2
-9.8
5.4
-4.7

윌리엄 왕세손 맞이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AP 연합뉴스

우버택시 영업금지 전세계로 확산

베를린 이어 네덜란드도 "영업 못한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 등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받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약 1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미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여러 명이 적발돼 1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졌다. 로테르담에서도 서비스 첫날부터 단속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우버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이국명기자

새로 나온 책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메디치미디어

'대통령의 글쓰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강원국씨가 이번에는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 계책을 소개한다. 저자는 '직장 글쓰기'는 논술도 소설도 아니라고 말한다. 심리가 절반 이상이다. 즉,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잘 쓴 글도 읽지 않는다는 것. 결국 말과 글, 소통, 관계, 심리는 한통속이다.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에 탓이야

권찬석/살림

우리 시대의 다양한 연애 풍경들을 짚어보면서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섯 명의 인문학자들이 연애를 성찰해본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1920년대에 주류적 사랑의 대안이었던 '붉은 연애'를 다시 소환해내기도 하며, 근대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사랑의 역사적 양상을 살펴 기도 한다.

대가의 조언

존 해먼드/전략시티

현대 의사 결정 이론의 체계를 정립한 세 명의 석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술'을 소개했다. 올바른 문제인식, 달성 목표의 구체화, 창의적인 대안의 발굴, 대안별 결과 예측, 절충을 통한 대안 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 위험 감수에 대한 판단, 연관된 의사 결정에 대한 고려 등 8단계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김낙회/쌤앤파커스

제일기획 최초 공채 출신 CEO가 인문고전과 비즈니스에서 찾아낸 현명한 결단의 원칙을 귀띔한다. 책의 포인트는 업적과 성공담이 아니라 '고민과 질문'이다. 결단을 앞둔 리더로서의 고민, 살면서 부딪혔던 크고 작은 고민에 대해 저자의 경험과 도움 받았던 인문고전 속 이야기들을 이용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셰프다

곽혜숙/호미

저자가 이탈리아에 머물며 다양한 요리를 배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요리 견습생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동료 요리사들과 부대끼고 적응해가는 이야기부터 이탈리아 요리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걸음까지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지영기자

나를 위한 '마음 리셋법'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번뇌'를 줄이는 방법

9할 –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스노 슌묘/담앤북스

불안, 걱정, 욕심, 짜증, 질투, 허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고 평생 품고 사는 못난 마음이다. 일본의 선승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스노 슌묘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못난 마음 리셋법을 전한다. '온몸으로 바람을 느껴보기', '지금에 집중하기', '마음 가라앉히는 나만의 주문 만들기' 등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마음 리셋법을 실천하면 삶이 편안해진다.

일요일 저녁 개그콘서트를 보다가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거렸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2014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개그콘서트란 다음 주에 일어날 일어나 일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아닐까. 물론 문제는 개그콘서트가 아니다. 불안해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욕심내는 습관, 질투하는 습관, 짜증 내는 습관, 허세를 부리는 습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습관. 이 못난 마음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선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정원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저자 마스노 슌묘는 이 같은 못난 마음을 '번뇌'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번뇌에 대해 저자는 때 너그러운 관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못난 마음의 문제, 즉 번뇌의 원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보다는 번뇌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저자는 아침에 5분 빨리 일어나기, 술 마실 때 상대와 헤어지는 시간 정하기, 어린 시절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 떠올리기 등 저자가 제안하는 마음 리셋법은 참 쉽다. 그래서 책을 읽는 즉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어제와 전과는 다른 하루,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둘도 없는 나의 친구

동물과 관련된 사랑의 감정이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있고 따뜻한 온기의 편안함이 있다. 또 같이 있으면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하다. 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말 그대로 더 풍요롭고 더 매력적이다. –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제니퍼 S. 홀랜드/시그마북스) 中–

/황제훈기자 hoyu0848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14년은 '미디어셀러'가 출판계를 흔들었다.

예스24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서 판매 동향을 집계해 9일 발표했다.

올해 최다 판매 도서는 동명 영화가 개봉했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차지했다.

이어 tvN 드라마 '미생'의 원작 웹툰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완간 세트,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스토리를 적절히 녹여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에드워드 둘리틀의 신기한 여행' 등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편 해외문학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다. 2014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도서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소설 영화화와 인기 작가의 신작 출간, 노벨문학상 수상 등의 이슈에 힘입어 100위권 내 해외 문학 분야 도서가 지난해보다 5권 증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유아, 어린이 분야 도서가 각각 3권, 2권씩 증가했다. /김수정 기자

보물을 찾는 현대판 '해적'

화제의 책

'ㅁ생' 작가 윤태호가 선보이는 범죄 드라마

파인 윤태호/위즈덤하우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미생'의 작가 윤태호가 최신작을 들고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범죄물로 말이다.

1970년대 중반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 하나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 신안 앞바다의 골동품을 노린 모리배들이 모여들고 이들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절도나 사기 등을 저지르며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다.

또 보물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꼼꼼한 작전이 펼쳐지고 팽팽한 심리전이 이어진다. 그리고 주인공을 맡은 오관석과 그의 조카 희동은 사기도 예술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물론 저자 특유의 장점답게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표현돼 자연스럽게 몰입되는 긴장감도 색다른 재미로 다가온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대사 역시 한 마디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아울러 저자는 범죄의 전략과 수행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범죄 드라마를 완성해가고 있다. 1975년 보물선이 발견됐다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현장성을 살리기 위한 끝없는 답사와 자료조사 덕분에 드라마는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이제 눈을 뗄 수 없는 악당들의 고군분투기를 만나보자. /황제훈기자

호텔 디럭스룸에서 우아한 연말연시를

르네상스 서울 호텔 '홀리나이트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다 뜻 깊게 보낼 수 있도록 'Oh holy night 패키지'를 내년 1월 4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는 디럭스 룸에서의 1박과 카페 일리제 2인 조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객실 내 인터넷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센터, 실내 수영장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특제 훈제연어와 소 안심구이가 포함된 연말 특선 디너 2인과 하우스 와인 1병이 제공되며 특별선물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기자 hsoul38@

편의점 올해도 PB(자체상표)가 잘팔렸다

버스커 공연·카페형 등장… 포맷 다양화

올해 편의점에서는 자체상표(PB) 먹거리 상품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음료·간편식 등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버스커 공연 무대·파우더룸 등 상권별로 차별화된 점포가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편의점 업계가 올해의 주요 이슈를 결산해 9일 발표했다.

PB 상품의 인기는 여전했다. 히트상품 순위(1~11월, 판매수량 기준)에 다수의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CU가 출시한 '델라페 얼음컵'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히트 상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 바나나우유 판매량과 약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미네랄워터(500ml)'와 '델라페 아메리카노'가 각각 6위, 8위를 기록했다.

GS25에서는 'POP아이스컵'이 1위에 올랐다. 아이스컵은 올해만 5100만 개가 팔렸다. PB 생수 '함박웃음 맑은샘물(2ℓ)'이 저렴한 가격(1000원)으로 판매 2위를 기록했다.

미니스톱에서도 자체 패스트푸드 상품인 '점보닭다리'와 '미니컵볶음떡다리'가 각각 2위, 4위로 집계됐다.

모디슈머·SNS 등 사회적 이슈도 PB 상품 인기에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출시한 '자이언트 떡볶이'는 스트링치즈·삼각김밥·라면 등을 섞어 먹는 모디슈머 시식 후기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품귀 현상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신라면(용기)'보다 2배가량 판매량이 높았다.

GS25에서는 출시한 지 4년이 된 '김혜자 도시락'이 SNS상에서 '갓(god) 혜자 도시락', '마더테레사 도시락' 등의 별칭을 얻으며 올해만 전체 판매 수량의 34%인 1300만 개가 팔렸다.

◆버스커 공연부터 도시락 카페까지

올해는 개별 점포 특성을 살린 새로운 포맷의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문을 열었다. 생활 밀착형인 편의점 특성상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점포가 필요해진 것이다.

CU는 지난 4월 '마로니에공원점'을 열었다. 이 점포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 2~3평 남짓한 소형 무대를 마련하고 거리 공연을 위한 앰프·마이크·조명 등 일체 공연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CU 덕성여대학생회관점'은 여대생을 위한 '스터디룸', '파우더존', '피팅룸(탈의실)' 등 편의 시설을 배치했다.

세븐일레븐은 복합 편의공간을 콘셉트로 도시락 카페 1호점 'KT 강남점'을 열었다. 매장 면적이 총 264㎡ 규모로 총 32석의 테이블과 8석의 미팅룸이 마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편의점은 기존 물리적인 접근성을 넘어 고객에게 얼마나 차별화된 상품과 편의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콜레스 골절 조심하세요~"

신상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낙상 주의 당부

추위가 시작되면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골절인 콜레스 골절에 대한 얘기를 신상진(사진)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에게서 들었다.

콜레스 골절은 낙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유발되는 손목 골절이다. 골절이 발생하면 손목 변형과 함께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염발음(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과 감각 이상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이런 콜레스 골절은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저하되고 신체적인 노화로 운동신경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절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로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해야 한다. 또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신 교수는 "환부에 냉찜질을 통해 부종을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되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압박한 후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치시켜야 한다. 또 외출 전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웅기자

한겨울에도 발끝은 '훈훈'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홍보모델들이 빙판에 강한 논슬립(non slip) 겨울 부츠인 '시크릭스'를 선보이고 있다. /네파 제공

에어비타, 무선 공기청정기 '에어볼'

공기청정기 전문 기업 에어비타는 무선 공기청정기 '에어볼'을 선보였다.

가정용 콘센트뿐만 아니라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하면 충전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만 하면 무선으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크기의 디자인으로 옷장·신발장·싱크대 등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악취가 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둘 수 있다.

또 1㎤당 200만 개 이상의 음이온 배출로 각종 악취를 없애주는 탈취 기능과 황색포도상구균, 슈퍼박테리아, 대장균·녹농균 등을 99.9% 살균이 가능하도록 항균 기능이 적용됐다.

한편 에어비타는 에어볼 출시를 기념해 제품을 구입하면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카비타 II S'를 증정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상품은 500개 한정으로 판매된다.

/김수정기자

아웃도어 시장 '친환경 바람' 분다

재생 가능한 심파텍스 등 천연섬유 활용 활발

'웰빙' 에코 트렌드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소재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커피 원두·코코넛 껍질 등 천연 원료로 만든 섬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소재 기업인 심파텍스는 페트병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기능성 의류 원단인 '심파텍스(SympaTex)'를 만들었다.

인체에 안전한 폴리에스터와 폴리에스테르 분자가 결합된 자연 친화적 소재로 '오코텍스', '블루사인' 등 유럽 최고의 친환경 마크를 획득했으며 그린피스 친환경 소재로 등재되기도 했다. 투습막이 제한된 다른 아웃도어 소재와 달리 구멍이 없는 고분자 방식으로 내부온도와 습도가 높아질수록 투습력이 올라가 쾌적함을 유지해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아솔로는 심파텍스 원단을 사용한 '프레스티지구스 코트'를 출시했다. 방수·발수·방풍·투습성이 뛰어나며 세탁 후에도 기능성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탈취효과가 탁월한 커피는 땀에 많이 노출되는 아웃도어 소재에 활용되기도 한다. 커피 원두에서 나노 입자를 추출한 후 원사에 주입해서 만든 '에스카페' 원단은 항균·소취 기능은 물론 흡수·건 기능이 뛰어나 위생적이며 쾌적하다.

머렐과 에이더는 커피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 각각 '테크티컬 팬츠'와 '이르세스 팬츠'를 선보이고 있다.

코코넛 열매에서 섬유를 추출해 만든 '코코나'도 환경친화적인 소재 중 하나다.

코코나로 만든 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땀을 배출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박지원기자

<아줌마들의 총리>

"'줌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드라마 인기 실감 "젊은 친구들도 알아 봐"
실제 연애는? "순애보 아닌 맞춤형 가까워"
"미니시리즈 욕심 없어"… '장보리' 이유리처럼 되고파

이중문(31)은 눈빛이 촉촉한 배우다. 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서 과묵하지만 착한 장서준 역을 맡았다. 사랑하는 여자 은현수(최정윤)만 바라보는 순정파이기도 하다. 이중문의 강점인 눈빛은 장서준의 매력을 두드러지게 한다. 악역이 돋보이기 마련인 아침드라마지만 그는 "더 착하게 연기해야 악한 캐릭터가 살아난다"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요즘은 거친 남자가 뜨더라고요. 장서준을 답답하게 느끼는 시청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밝게 보여야 하고 더 착하게 해야 악역인 복수호(강성민)가 돋보이죠. 제 역할에 맞춰 연기하면 됩니다. 착한 남자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착한 남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출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중문은 "처음부터 장서준 역에 캐스팅됐고 시놉시스를 본 뒤 출연하고 싶어 오디션을 봤다"며 "주인공을 하고 싶었다. 아침드라마라고 무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상파 주연은 연기자 통틀어 1%가 되지 않는다. 캐스팅 된 것에 감사하고 연기자니까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출연 이유를 말했다.

'청담동 스캔들'은 이중문의 전역 이후 첫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의 작품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데뷔한 지 12년차지만 새 작품을 한다는 건 매번 떨리죠. 더구나 '청담동 스캔들'에서는 첫 남자주인공을 맡았어요. '이중문'이라는 이름이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더라고요."

이중문의 걱정과 달리 작품은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를 통틀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송 시작 전에는 길거리에서 촬영해도 힘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모여 들죠. 등교 시간도 늦춰져서 의외로 젊은 친구들도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촬영을 하면 젊은 사람들도 알아 봐요."

그는 다수의 일일극과 아침드라마를 통해 '줌통령'(아줌마들의 대통령)으로 자리 잡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침드라마를 하는 배우 중 제가 어린 편에 속하니까 어머님들이 볼 때 아들 같은 거죠. 함께 출연 중인 강성민이 진짜 대통령이죠. 저는 총리 정도? (웃음)"

장서준은 복수호의 전 부인 은현수를 향한 순애보로 여성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장서준을 짝사랑하는 남주나(서은채)와 장서준이 사랑하는 은현수 두 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남주나와는 오빠와 동생 사이로 보여야 하고 은현수의 경우 유식녀와 지나치게 가까우면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했죠. 이번에 처음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나칠 수 있었던 감정까지 잡아내 섬세하게 연기 중입니다."

"실제로도 순정적인 남자인가"라는 물음에는 "맞춤형 연애"라며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순애보적이면 나도 그렇고 그 사람이 못되면 나도 못돼진다"고 답했다. "현재 여자친구는 없어요. 결혼은 저보다는 강성민 형이 더 급하죠. (웃음) 데뷔 후 매년 작품을 했고 군대에서 흘러간 20대를 생각해보니 못 즐긴 게 가장 후회되더라고요."

그는 군대 시절 20대를 돌아보며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청담동 스캔들'에 임하고 있다.

"20대에는 작품에 쫓기며 살았죠. 최선은 다했지만 주어진 것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간절해졌어요. 사람들은 아침드라마니까 쉽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출연진 모두 미니시리즈를 하듯 연기하죠. 예전 같았다면 '미니시리즈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과 얼굴을 모두 알리고 싶어요. 얼굴 보고 '어 누구지?'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름만 듣고도 제 얼굴이 떠오를 수 있게요. 미니시리즈에 욕심 없어요. '청담동 스캔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죠. 작품도 저도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면 대중은 사랑해주는 거 같아요. '왔다! 장보리' 이유리 누나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이번에 얻은 거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cochy@metroseoul.co.kr·사진/김선준(카운드 리어를) 디자인/김아람

크리스마스·연말 '디너쇼 릴레이'

이미자·심수봉·주현미·조영남 등 무대 이어져

연말을 맞이해 이미자 심수봉 주현미 조영남 등 가요계의 스타들이 디너쇼를 연다.

연말 디너쇼의 포문은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주현미가 연다. 주현미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특별 디너쇼를 연다.

지난 1984년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주현미는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의 노래로 1980~90년대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며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히트곡 퍼레이드는 물론 밴드·특별게스트가 함께하는 웅장한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는 각오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데뷔 55주년 기념 디너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이미자는 지난 55년 동안의 노래 인생을 회고하는 자리를 갖는다. 총 560장의 음반과 2000곡 이상을 발표한 그는 '동백아가씨' '기러기아빠' '섬마을 선생님' 등의 히트곡을 비롯해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엄마을 순정' 등 시대를 초월하며 사랑받은 곡들을 무대 위에 올릴 예정이다.

이미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 내 노래를 듣고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세월이 지나 요즘도 내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지 않는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도 오는 23일 오후 7시, 25일 오후 6시 2회에 걸쳐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크리스마스 디너쇼를 연다.

심수봉은 이번 공연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엔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등 주옥같은 명곡 릴레이는 물론 장엄하고 화려한 무대 연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쎄시봉 큰형님' 조영남은 오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디너쇼를 진행한다. 조영남의 디너쇼는 '부모님 세대를 위한 맞춤형 크리스마스 파티'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 '딜라일라' 를 비롯해 '화개장터' '제비' 등 히트곡과 1970년대 명동 음악다방 '쎄시봉' 친구(송창식·윤형주·김세환)와 함께 부르던 추억의 명곡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직접 편곡한 캐럴을 관객과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해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게스트와 호흡을 맞춘다.

디너쇼 릴레이의 마무리는 '트로트 음자' 박현빈이 장식한다.

박현빈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14 쾌지나 칭칭 디너쇼'를 개최한다. 그는 '오빠만 믿어' '곤드레 만드레' '빠라빠빠' '샤방샤방' 등 히트곡은 물론 최근 발표한 신곡 '쾌지나 칭칭' 등 다양한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특히 그는 이번 공연에 소상공인, 80세 이상 노인, 국가 유공자 등을 초청해 위로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기자 ‹ ›@metroseoul.co.kr

연말엔, 태진아의 '사랑타령'과 함께

10일 새 앨범 발표

가수 태진아가 새 앨범을 발표한다.

태진아의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10일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태진아의 새 앨범 '사랑타령'을 발매한다고 9일 밝혔다.

'사랑타령'은 태진아가 작사 작곡한 노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들고 슬픈 현실을 대변하는 노랫말이 상금을 울리는 곡이다. 태진아의 허스키 보이스와 샤우트 창법에 민요 창법이 더해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번 앨범에는 신곡 '사랑타령'을 비롯해 '옥경이' '동반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 히트곡 20여 개가 함께 수록돼 있다. 관계자는 "신곡의 새로운 매력과 히트곡의 추억이 공존하는 음반"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진아는 9일 오후 KBS1 '열린음악회' 송년 특집 녹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곡 활동에 나선다.

/정지민 기자

'슈퍼스타K5' 박시환 소속사 찾았다

내년 초 목표 정규앨범 준비

엠넷 '슈퍼스타K5' 준우승자인 '철트가이' 박시환이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박시환은 지난달 새 소속사 토탈셋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내년 초를 목표로 정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토탈셋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박시환은 여러 유명 작곡가, 프로듀서와 접촉하고 있으며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초 박시환이 가진 음색이 최대한 발현된 앨범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시환은 지난 4월 데뷔 앨범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발표하고 '알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그대로' 등의 노래로 팬들과 만났다.

/정지민 기자

칸토, 예즈원과 환상 호흡

힙합그룹 트로이의 멤버 칸토가 두 번째 솔로 싱글 앨범 '눈보다 먼저'에서 여성 보컬 예즈원과 호흡을 맞췄다.

칸토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9일 정오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칸토의 신곡 '눈보다 먼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 영상엔 걸그룹 헬로비너스를 탈퇴한 윤조가 칸토와 풋풋한 연인의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모은다.

브랜뉴뮤직 측은 "'눈보다 먼저'는 칸토의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 래핑과 천사같이 예즈원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환상적인 케미(케미스트리)를 이룬 곡"이라고 밝혔다.

칸토와 예즈원이 함께한 '눈보다 먼저'는 오는 11일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김지민 기자

휘성, 알리와 듀엣곡 발표

'WS 듀엣 프로젝트' 세 번째 곡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수 휘성이 5일 정오 알리와 함께 한 듀엣곡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을 음원 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은 휘성의 'WS 듀엣 프로젝트' 세 번째 곡이다. 휘성은 앞서 범키와 함께 한 '열마짜리 사랑'과 긱스가 참여한 '친구로 남아줄게' 등의 듀엣곡을 발표했다.

신곡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은 휘성이 작곡가 최희준·황승찬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노래다. 이별을 겪은 연인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익숙했던 그대로 사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휘성은 현재 단독콘서트 '2014 휘쇼[WHEESHOW]'와 뮤지컬 '조로'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민기자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다나

권현상 뱀파이어 변신

KBS2 새 월화극 '블러드'

배우 권현상(사진)이 KBS2 새 월화드라마 '블러드'에 캐스팅됐다.

권현상이 '블러드'에서 맡은 인물은 권투 선수 출신 뱀파이어 남궁훈이다. 그는 기존의 악역 이미지에 액션을 더한 전투 뱀파이어로 스릴 있고 생동감 있는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그 동안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연기력으로 주목 받은 권현상은 현재 뱀파이어 캐릭터 표현을 위해 무술연습에 매진 중이다.

권현상은 영화 '고사: 피의 중간고사'로 데뷔했다. '상철네오', '구국의 철가방', '타워', '돈 크라이 마미', '햇 미아웃' 등의 영화로 충무로 블루칩으로 각광받았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 미드 '두하즈', '뱀파이어 검사 시즌2' 등에도 출연했다.

최근에는 영화 '타투이스트'와 '비지터트해술' 촬영을 마쳤다. KBS2 새 월화드라마 '블러드'를 차기작으로 선택해 안방을 다시 찾을 계획이다.

'블러드'는 뱀파이어 의사의 활약상과 멜로를 담은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로 내년 초 방송된다.

/탐창호기자

'명량' 12일 中 개봉

배우 최민식이 영화 '명량'의 중국 개봉을 기념해 중국을 찾았다.

9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이 '명량' 중국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위해 지난 5일 중국을 방문했다. '명량'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최민식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최민식의 중국 방문에는 중국의 유일한 영화 전문 채널인 CCTV 6의 '중국영화리포트' 방송을 비롯해 인민일보·북경청년·신화일보·중국일보 등 유력 일간지, 중국 최대 영화 전문 온라인 사이트 엠타임·왕이·시나 등이 모여 일만 취재 열기를 보였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텐센트의 영화 소개 전문 프로그램 '살롱'에서의 인터뷰는 주요 매체에서 기사화됐다. '명량' 공식 웨이보에는 "최민식 배우 중국 왔다"라는 검색어가 당일 검색어 랭킹 11위에 올랐다.

'명량'은 오는 12일 중국 내 3000여개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탐벽호기자

이종석, 촬영감독이 인정한 배우

'2014 그리메상' 남자 최우수 영예…믿고 보는 '얼굴' 호평

배우 이종석(사진)이 방송 촬영감독들에게 인정 받았다. 2014 그리메상 시상식에서 남자 최우수연기 부문 최연소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그리메상은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KTPA)가 1993년 제정했으며 1년 동안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영상을 연출한 촬영 감독에게 주는 상이다.

최우수 남자 연기자상과 최우수 여자연기자상은 1996년부터 수여됐다. 한해 동안 활동한 연기자 가운데 뛰어난 연기력과 좋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 중에서 촬영 감독들의 투표로 입상자를 선정한다.

이종석의 최우수 남자 연기상 수상은 20대 중반 남자 배우로는 역대 최초다. 앞서 이 부문에서는 조재현·이성민·지승현·소지섭·장혁·김명민·송일국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수상한 바 있다.

이종석은 16세 나이에 모델로 데뷔한 뒤 2010년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로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이어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KBS2 드라마 '학교2013'과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인기를 얻고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서는 우수 연기자상을 거머쥐었다.

올해 초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메디컬부터 멜로, 코믹에 이르기까지 성숙된 연기로 복합 장르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현재 이종석은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사회부 기자 최달포로 분해 열연 중이다. 작품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히트시킨 박혜련 작가와 조수원 PD, 이종석의 재회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그는 매회 다양한 감정 연기로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2014 그리메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다.

/현효진기자 jsonhj@metroseoul.co.kr

이현재, 中 '아이치이 밤' 영화 부문 신인상

중국영화 촬영 앞둬…새로운 한류스타 예고

록밴드 에덴의 드러머이자 배우 이현재가 중국에서 조용하게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다.

소속사 측은 9일 이현재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 아이치이[AIQIYI] 밤' 시상식에서 영화 '소시대3: 자금시대'(이하 '소시대3')로 올해의 영화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이치이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투자해 설립한 동영상 서비스 전문업체다. 이번 시상식은 아이치이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시상식으로 중국·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영화·드라마·음악·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이현재는 한국인으로서 영화 부문 최초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 전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취재진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현재가 출연한 '소시대3'는 인기 소설 시리즈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난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다. 중화권 인기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가운데 이현재는 극중 중국 배우 곽채결의 동생으로 분했다.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이현재는 밝은 성격의 변호사 네임 역을 맡아 부드럽지만 냉철한 모습으로 여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곽학성, 김태형과 함께 3인조 록밴드 에덴의 멤버로도 활동 중인 이현재는 당분간 배우로서 중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재의 소속사 레몬레인 관계자는 "'소시대3' 출연 이후 중국 현지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곧 또 다른 영화에도 임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작품 스케줄이 모두 잡혀 있다"고 전했다. 12일에는 명품 브랜드 펜디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kumc@…

록밴드 에덴의 이현재 아이치이 제공

노민우 '순수남' 되다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 주인공으로 발탁

가수 겸 배우 노민우(사진)가 MBC 드라마넷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는 필요하면 거짓도 불사하는 여자와 쓸데없이 진실만 고수하는 남자의 거짓말 같은 진짜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다. SBS 플러스 '풀하우스 테이크2'를 연출한 남기훈 PD와 영화 '레드카펫'의 시나리오를 쓴 이재윤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노민우는 진실은 통한다고 믿는 어린왕자 같은 인물 윤태윤 역을 맡았다. 그 동안의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이미지를 벗고 순수한 소년 같은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풀하우스 테이크2'에 이은 남기훈 PD와의 재회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소속사 MJ드림시스 측은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와는 상반된 캐릭터를 통해 노민우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라 생각한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차기작인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나의 유감스러운 남자친구'는 내년 3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장성호기자 solanin@…

"섹시한 '여여케미' 기대하세요"

조여정·클라라 '워킹걸'로 호흡 … 정범식 감독 "새로운 시도"

배우 조여정, 클라라 주연의 섹시 코미디 영화 '워킹걸'(감독 정범식)이 9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제작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봉 준비에 들어갔다.

'워킹걸'은 하루 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커리어우먼 보희(조여정)와 폐업 일보 직전의 성인숍 CEO 난희(클라라)가 동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기담'으로 주목 받은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식 감독과 조여정, 클라라, 그리고 조여정과 함께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배우 김태우가 자리해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영화는 '방자전' '후궁' 제왕의 첩'부터 최근 '인간중독'까지 섹시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여온 조여정, 그리고 섹시 아이콘에서 배우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다.

조여정은 "클라라는 정말 섹시하다. 서로 미용실에서 마주치며

9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워킹걸'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조여정(왼쪽)과 클라라

'섹열'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김태우와 부부 역할을 맡았지만 클라라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았다. 여여(女女)케미'는 자신 있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클라라도 "조여정이 정말 많이 챙겨줬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케미가 생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여배우는 섹시함이 공통적인 매력인 만큼 신경전도 예상된다. 그러나 조여정은 "클라라와 몸매 신경전은 전혀 없었다"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정장을 주로 입고 클라라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타이트한 의상을 입는다. 클라라는 서의 굶었고 나와서 안쓰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성인숍 CEO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도 기울였다. 그는 "성인숍에 대해 공부했다. 하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그 동안 주로 공포영화를 연출해온 정범식 감독은 "불나방이 타오르는 촛불을 향해 뛰어들 듯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며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번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워킹걸'은 내년 1월 8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새해 스크린 찾는 클래식 선율

메가박스, 빈·베를린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중계

멀티플렉스영화관 메가박스(대표 이한주)는 세계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양대 산맥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2015년 신년음악회 실황을 중계한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는 193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80개국 7억명의 클래식 팬들이 함께 하는 음악회로 내년 1월1일 오후 7시에 생중계된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200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휘봉을 잡는다. 오스트리아에 '왈츠의 도시' 명성을 안겨준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왈츠곡들로 구성됐다.

내년 1월3일 오후 8시에는 2015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딜레이 중계한다. 현지에서 오는 31일 진행되는 음악회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난해 베를린 필하모닉을 통해 솔로이스트로 다시 데뷔한 91세의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가 연주에 나선다.

사이먼 래틀의 지휘로 장 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졸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다이의 '마라이노스 모음곡',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 생기 넘치는 작품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빈 필과 베를린필 신년음악회는 메가박스 전국 12개 지점에서 상영된다. 티켓 가격은 일반 3만원, 청소년 1만5000원이다.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장병호기자

다시 만나는 故 로빈 윌리엄스

유작 '박물관이 살아있다3' 내년 1월 개봉

지난 8월 세상을 떠난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모습을 내년 1월 스크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로빈 윌리엄스가 생전에 찍은 마지막 작품인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이하 '박물관이 살아있다3', 사진)은 내년 1월 한국에서 개봉한다.

'박물관이 살아있다3'는 2006년 1편과 2009년 2편에 이은 속편이다.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신비로운 황금석판의 힘으로 되살아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시리즈다.

로빈 윌리엄스는 전작들에 이어 미국 전직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 역을 맡았다. 전성기 시절 가족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박물관이 살아있다3' 속 그의 마지막 연기는 관객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로빈 윌리엄스 외에도 시리즈의 주인공인 야간 경비원 래리 역의 벤 스틸러와 오웬 윌슨 등도 함께 출연했다. 연기파 배우 댄 스티븐스, 벤 킹슬리, 르벨 윌슨 등도 새롭게 가세해 영화에 신선한 재미를 더했다.

전작들은 미국 자연사박물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무대로 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그렸다. '박물관이 살아있다3'는 대영박물관으로 무대를 옮겨 모험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작들을 연출한 숀 레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기자

김민희·김태리, 박찬욱의 새로운 '뮤즈'

신작 '아가씨' 캐스팅 … 하정우·조진웅도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여주인공으로 배우 김민희(왼쪽 사진)와 신인 김태리(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조진웅과 하정우도 함께한다.

'아가씨'는 영국 작가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1930년대 한국과 일본으로 배경을 옮긴 작품이다.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 그녀의 후견인 이모부, 그리고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백작과 그에게 고용된 소매치기 소녀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담는다.

'화차' '연애의 온도'로 연기력을 인정 받은 김민희는 아가씨 역으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김태리는 1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통과한 신예다. '올드보이'의 강혜정, '박쥐'의 김옥빈 등은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한 박찬욱 감독인 만큼 두 여배우의 캐스팅 소식 또한 영화계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될 전망이다.

두 여배우와 함께 하는 남자배우는 하정우와 조진웅이다. 하정우는 백작 역으로 앞서 캐스팅됐다. 조진웅은 이모부 역으로 함께 한다.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의 제작사 모호필름과 '올드보이'의 임승용 프로듀서의 제작사 용필름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내년 1월 프리프로덕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

/장병호기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는 하루 1.5ℓ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조한 실내에 젖은 수건이나 물조, 어항을 두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지수	
감기가능지수	
한서 계통증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한체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3		2			6
8		6						3
	7		1			8		
				9			3	
3								5
	4			2				
		4			9		8	
2						5		4
6			5		4		9	2

				1	6			7
6	1				2	5		8
			5					
	7							6
		8	2		9	3		
2							4	
					5			
1		6	9				3	5
3			1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역사 스도쿠 프리미어'(제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수다 심한 옆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업무위해 공식적 문제제기 하세요

Q Hey 캣우먼!
30대 직장생활 7년차 여자입니다. 옆자리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늘 지각에, 짜증 섞어 얘기하며 어떤 일을 줘도 왜 자기가 하냐고 불평합니다. 일 미루다가 싸운 직원이 반년간 네 명. 그 중 한 명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휴직했고 다른 한 명은 안 좋은 타 부서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엔 들어줬지만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의 일이 고스란히 제게 넘어오기도 하고요. 30분 동안 할 일을 하루 종일 하고 5분 할 얘기를 2시간 합니다.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겠는데 부서 이동 희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견뎌야 할지요. 저는 소심해서 대놓고 그만 말하라고 못하겠어요. /괴로운 원수

A Hey 괴로운 원수!
한심한 동료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을 하는 것은 억울하고 피하는 일이니 그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업무효율 없이 말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붙어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녀에겐 믿고 의지할 모종의 '백'이라도 있는 건지요. 엄청 유능해서 조직이 그녀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줄 공동의 관리자는 대체 어디 있답니까?

이것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 업무에 지장을 주는 공적 문제입니다. 당연히 윗선 책임자에게 혼자 혹은 집단 투서를 해서 보고해 시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찬지르거나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사내의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효율을 마비시키는 공적 문제에 대해 부서 책임자에게 상담을 청하거나 공적인 보고를 올려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윗사람들은 그렇게 활용되기 위해, 교통정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가게문제로 골치, 해결방법 없을까 소나기 올때는 잠시 피하는게 상책

Q 작은 옷 찾가 여자 73년 8월 18일 새벽 4시

2013년 12월경 가게를 하나 차렸다가 장사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 한테 부담만 주게 되어 3월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2년간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다행이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 11월말까지 두 달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2일 전에 못 들어오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곤이어도 3월말에 다리가 부러져 지금 2달째 꼼짝도 못하고 요양 중이고 소유하고 있는 작은 상가는 13년 된 임차인이 갑자기 2주 뒤에 나간다고 급히 통보하더니 시설 문제로 크게 싸우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임자(壬子) 생일주(日)이나 생인에 재성(財星)이 없어 있는데 운세가 상승하면 재성(財星)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돈이 나에게로 쏟아지지만 운세가 쇠하거나 막히지면 살(殺)이 되어 현재와 같이 진퇴양난이 되지요.

2015년도 반복되는 현상이니 이런 시기에는 한 발작 물러나야 길이 해결되기에 다투어야 위험만 됩니다. 다가올 1월엔 관재구설이 동반되니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되회전이 빠르지만 불안스러움이 내포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빠르면 여지없고 지속적이지를 않습니다. 재물과 문서 운이 흔해를 당하고 있을 때는 평소와 달리 주의를 하고 따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큰절하지 않아니 지금부터라도 신중히 하십시오.

풍(風) 등불을 받듯이 통(桶)이란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듯 움직이지를 말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한 것의 결과로 고진감래(苦盡甘來)를 기대하세요.

2016년이 지나면서는 새롭게 단장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발복하기 시작하여 승승장구하게 되었으니 인생 100세 시대에 지금처럼 한 때의 어려움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합니다.

같은 이름에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지만 흉운(凶運)인 때는 찾아와 찾는 사람이 없게 됨과 같습니다. 일인(日刃) 날에 양인(羊刃)으로 구성수가 따르기 쉽고 적을 두어 도처에 시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현공 하하고 수양(修養)하고 있는 자세가 지혜롭습니다.

귀하는 바다가 깊고 넓어 만물을 감싸는 형상이나 도량과 인정이 넘치며 끈질긴 면이 있어 인인자중(忍忍自重)하여 선은 실력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궁금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0일(음 10월 1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대접 받으려면 품 아껴라. 60년생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72년생 밝고 깔끔한 색이 행운을 주니 참고하라. 84년생 작심은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

소 49년생 좋은 일에 박수 쏟아진다. 61년생 무장코 속내 덜어놓지 않도록~ 73년생 이쁜짓만 하는 후배가 기쁘게 한다. 85년생 친구를 돈거래 신중할 것.

호랑이 50년생 뻔지난 논쟁은 삼가라. 62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안 나게 된다. 74년생 일진이 별로이니 다투는 일은 피하라. 86년생 힘든 뭔지만 보람된 하루가 됩니다.

토끼 51년생 과욕 부리면 내리막 자초한다. 63년생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75년생 따르는 사람이 많아 지름 늘어난다. 87년생 지나간 일로 고민하지 마라.

용 52년생 안 될 사류 기다리지 말라. 64년생 자녀문제는 좋은 결과으로 해결된다. 76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 88년생 애정문제는 해결된다.

뱀 53년생 계획은 지체된다. 65년생 목돈 들어갈 경사가 생기니 대비하라. 77년생 공들인 일은 성사가 된다. 89년생 항상 내 생각이 옳을 수 없는 법~

말 42년생 남의 일 간섭 삼가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작은 고민 생긴다. 66년생 공적인 자리서 찍힐 일도록 조심~ 78년생 구원투수로 나설 일이 생긴다.

양 43년생 인내와 자신감 필요하다. 55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67년생 돈 문제는 해결이 된다. 79년생 방둥을 불을 끄고 다음 생각할 것.

원숭이 44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56년생 음악이 울리는 자리에 초대받는다. 68년생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80년생 공들인 일은 성사가 된다.

닭 45년생 자녀가 좋은소식 전한다. 57년생 시비를 거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라. 69년생 덜이 많으면 지름안 늘어난다. 81년생 꿈을 이루기 위해선 실수 두려워 마라.

개 46년생 덩치만 커진 일은 줄여라. 58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0년생 들어오는 문서는 천천히 검토할 것. 82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어려움 극복한다.

돼지 47년생 꼭 피한 일은 풀린다. 59년생 욕심 부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71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3년생 신용관리 하는데 신경 써라.

올림픽, 복수 국가·도시에서 열린다

바흐 위원장 "2018평창 동계·2020도쿄 하계 종목 분산 가능"
개인자격 IOC 위원 늘려… 조양호 평창위원장 재도전 길 열려
IOC 드라이브 전 종목 분산 개최, 평창조직위 반발…향배 주목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어젠다 2020' 중 하나인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OC는 8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제127차 임시총회를 열고 복수 국가와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04명의 IOC 위원 가운데 96명이 참석했다. 토마스 바흐(61·독일) IOC 위원장은 투표 전 "이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않으면 올림픽과 IOC는 곧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개혁을 키워드로 한 '올림픽 어젠다 2020'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선정 방식 변화 ▲올림픽 운영 ▲올림픽 전문 방송 채널 신설 ▲IOC 위원 임기 변화 등이다.

올림픽 분산 개최 결정은 올림픽 개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한 나라에서만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동 유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임시총회의 도마 [illegible] 위원장

AP뉴시스

이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교류 개최가 현실화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젠다 2020이 확정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한국과 일본이 일부 종목에 한해 분산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평창과 도쿄의 종목 교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복수 도시 개최안은 차기 개최지 선정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바흐 위원장이 제시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창 조직위와 도쿄조직위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미 평창조직위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OC 위원의 선출 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1국가당 1명으로 제한돼 있던 개인 자격의 IOC 위원 수를 최대 5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IOC 위원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 국제연맹(IF) 임원, 개인 자격, 선수 출신 등 각각의 자격으로 한 국가에서 최대 4명까지 나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1996년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건희(71) 회장과 2008년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대성(38) 위원 등 2명이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IOC 위원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IOC 위원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대한탁구협회장이자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그는 NOC 임원 자격으로 IOC 위원에 뜻을 뒀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최종 9인에 들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인 자격으로 IOC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일정 출전 선수 규모와 세부종목 수를 지킨다면 개최도시가 정식 종목 수를 28개보다 늘리는 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구와 소프트볼, 스쿼시, 가라테 등의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야구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마지막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에서 빠져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송학철기자 [illegible]

이승엽, 역대 최다 골든글러브 신기록

9번째 수상 영예 서건창·박병호 3년 연속 '쾌거'

'국민 타자' 이승엽(삼성·사진)이 한국프로야구 역대 개인 통산 최다인 9번째로 '황금 장갑'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9일 오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승엽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301표를 얻어 홍성흔(두산)과 [illegible]지완(KIA)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승엽은 이번 시즌 동안 최고령 30홈런-100타점을 기록하는 등 다옹 0.308과 32홈런 101타점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기세를 몰아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 기록까지 새로 썼다.

이날 시상식에서 서건창과 박병호, 강정호(이상 넥센)는 각각 2루수 1루수·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건창과 박병호는 3년 연속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다. 3루수 부문에서는 박석민(삼성)이 162표를 얻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끼게 됐다. 양의지(두산)는 포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넥센의 밴헤켄은 273표를 얻어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은 것은 2009년 KIA 타이거즈의 투수 아퀼리노 로페즈 이후 5년 만이다.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는 손아섭(롯데) 나성범(NC) 최형우(삼성)가 선정됐다.

/[illegible]기자

MLB 노크 강정호, 메츠 등 관심

포스팅 시스템으로 진출 시도…15일 신청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넥센 히어로즈 유격수 강정호(사진)에 대해 뉴욕 메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등이 관심을 보내고 있다.

9일(한국시간) CBS스포츠의 존 헤이먼은 "많은 유격수 선수층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강타자 강정호가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며 "뉴욕 메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강정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헤이먼은 강정호를 한국 최고의 유격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그가 2루수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메이저리그 구단은 그가 다른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메츠는 현재 유격수를 구하는 중이다. [illegible] 지만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illegible]를 모색하고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한 3루수 파블로 산도발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고심 중이다. 강정호로 3루를 대체하거나 강정호에게 [illegible]기고 조 패닉을 3루수로 [illegible]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

한편 강정호는 한국 [illegible] 출신 야수로는 처음으로 포스팅(비공개 입찰)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한다. 오는 15일께 포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프로배구 전적

LIG손해보험	2	3	삼성화재

프로농구 전적

SK	15	21	13	17	72
KCC	22	18	20	24	82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우체국'